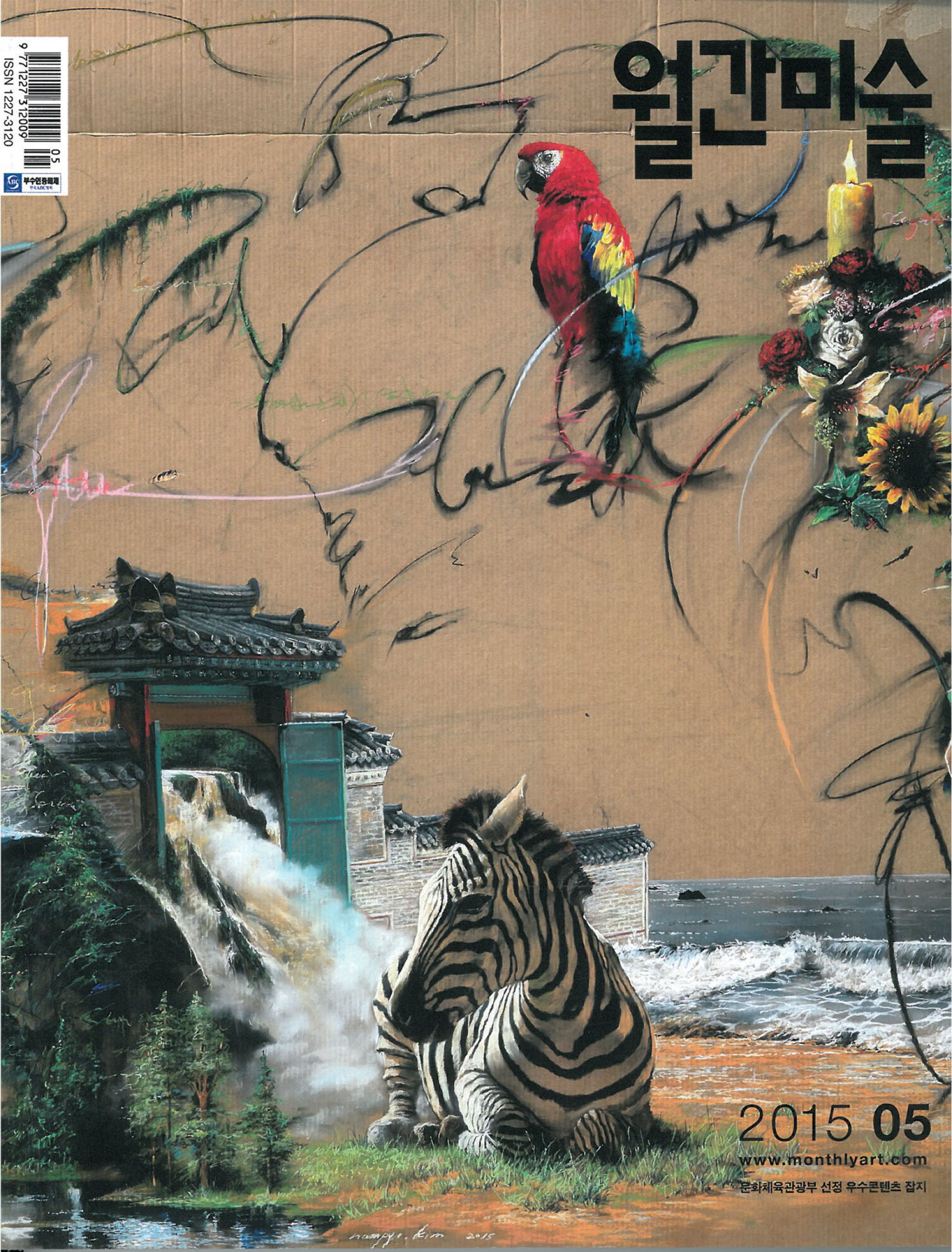


월간미술

9 771227 312009
ISSN 1227-3120
05
부수인용권
KOBIC



2015 05

www.monthlyart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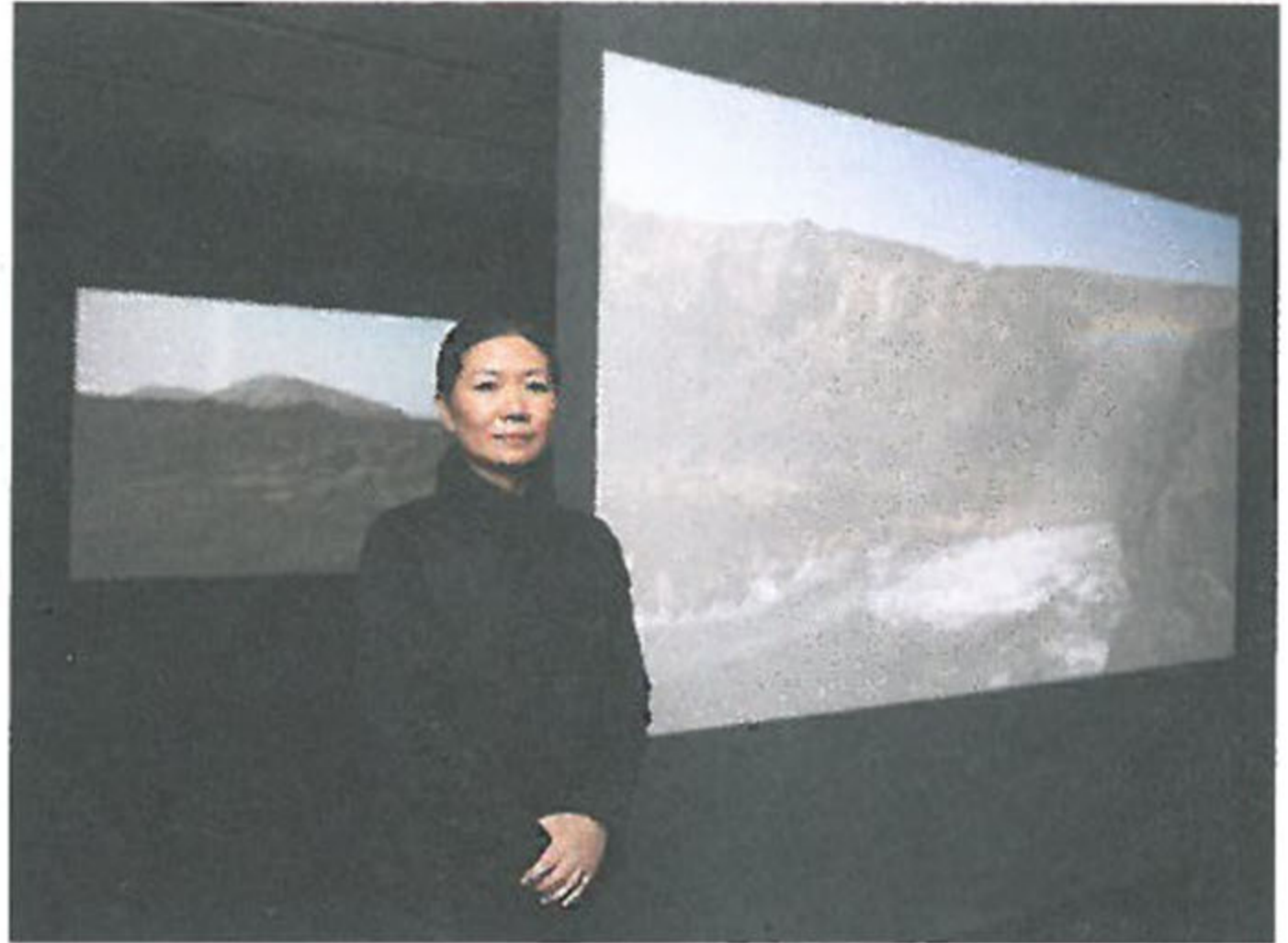
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

happy.kim 2015

삶의 근원을 사유하다

김수자, <2015 호암상 예술상> 수상

호암재단(이사장 손병두)은 4월 1일 <2015 호암상 예술상> 수상자로 김수자(사진)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. 김수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뉴욕을 기반으로 세계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. 영상 회화 설치작품을 통해



그만의 독창적 예술관을 보여주고 있다. 특히 이불 보따리를 신고 길 떠나는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'보따리 작가'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. 한국 여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 아름다움의 소재를 작품에 드러내며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. 200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세계 각국의 궁전이나 극장, 관공서 등 다양한 장소를 해석하고 그 장소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. 최근에는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을 주제로 <지수화풍> 연작을 진행 중이다.

1990년 제정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호암상은 예술상 뿐 아니라 의학상 과학상 등 총 5가지 분야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지금까지 총 127명의 수상자에게 199억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.

호암상 예술상 역대 수상자 중 미술분야 수상자로는 백남준(1995) 이우환(2001)이 있다.

한편 <2015 호암상 예술상> 시상식은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된다. 수상자에게는 상금 3억 원과 순금 50돈 메달이 수여된다. 호암재단은 시상식에 앞서 5월 29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이 참석하는 '제3회 호암포럼'을 연다.